

陸游 茶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生活 考察

송 인 주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陸游는 南宋시대의 시인으로 그는 역대 중국 시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詩를 남기고 있다. 그가 창작한 詩는 9200여수에 달하며 愛國詩를 많이 써서 애국시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茶詩창작에도 힘을 기울여 지금까지 320여수의 茶詩가 전해지고 있다. 宋代는 茶 문화가 흥성하여 시인들에게 茶詩 창작에 대한 많은 제재를 제공하였다. 이런 사회적 환경은 陸游가 茶詩를 창작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의 많은 양의 茶詩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육유의 茶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육유의 茶詩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본 논문에서 陸游의 茶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生活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陸游 茶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生活 考察

1. 서론
2. 宋代 茶文化
3. 陸游 茶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生活
4. 결론

1. 서론

陸游(1125~1209)는 北宋과 南宋이 교차하는 격변의 시기에 태어났으며 字는 務觀이고 號는 放翁으로 越州 山陰縣 사람이다. 문학적으로는 北宋中期 黃庭堅을 중심으로 형성된 江西詩派의 시풍이 커다란 영향력이 미치던 시기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보고 자랐으며 애국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저항과 투쟁 의식을 키웠다. 陸游는 이런 분위기에서 비분강개하는 愛國詩를 많이 써서 愛國詩人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는 역대 중국 시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詩를 남기고 있는 시인으로 그가 창작한 詩는 9200여 首¹⁾에 달한다. 陸游는 初期²⁾(45세까지)에 曾幾에게 詩를 배웠으며 그에게서 江西詩派의 이론을 전수 받아 형식미 추구에 힘을 기울였고, 中期 中, 前半時期(46~55세)인 在蜀時期는 南鄭에서 從軍 경험을 계기로 江西詩風에서 벗어

1) 許瑞琪 注評, 『陸游詩注評』, 齊魯書社, 2009, 2쪽.

2) 주기평, 『육유시가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0년의 시기 구분에 따름

나 憂國의 열정과 호방한 기개를 나타내는 愛國詩을 써냈고, 中期 後半(56~65세) 在山陰時期는 在蜀時期와 같이 憂國詩들을 써냈는데 在蜀時期와 구별되는 특징은 북벌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 많은 부분 울분과 비탄의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晩期(66~85세)는 고향에 閑居하면서 질박한 농촌의 일상적인 생활을 題材로 한 詩를 썼으며 이 시기는 작품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다.³⁾ 陸游의 茶詩도 대부분 晩年에 山陰縣 고향에서 거주할 때 창작했는데 그 작품 수는 320여 首⁴⁾나 된다.

中國文學史上 최초의 茶詩는 『詩經·穀風』이다. 이 詩 內容중 “누가 茶⁵⁾가 쓰다고 하나, 단맛이 냉이와 같네. (誰謂茶苦其甘如薺)⁶⁾”라는 詩句를 찾아 볼 수 있다. 兩漢에서 南北朝時期에 이르면서 飲茶의 풍습은 점차 형성되었고 茶詩 또한 증가했는데 예를 들면 揚雄, 王褒, 張載, 左思 등의 작품 중에 茶를 읊은 佳句들이 있고 唐朝에 이르면서 飲茶 문화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李白, 韋應物, 白居易, 陸龜蒙 등의 詩人들은 여러 편의 茶詩를 후세에 전하고 있다. 宋의 皇帝인 徽宗은 『大觀茶論』에서 飲茶을 강하게 제창해 宋代 飲茶 風俗과 茶事에 큰 영향을 주었고, 茶詩 창작에 理論的인 基礎를 갖추게 했다. 宋人의 茶詩 작품 중에는 茶道, 茶德에 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런 詩의 영향은 사람들의 차 문화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런 차 문화 환경들은 결국 陸游의 茶詩 탄생의 사회적 배경이 된다. 陸游의 茶詩는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높은 경지 이르러, 매우 높은 審美價値를 지니고 있다.⁷⁾

3) 주기평, 앞의 책, 42-64쪽 요약.

4) 劉黎明, 「宋代茶俗과 陸游의 咏茶詩」, 文史雜誌, 1998, 第05期

5) 염숙, 엄영옥 공저,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茶 문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55쪽, “중국 최초의 史書인 周公旦의 『爾雅』 「釋草篇」에 “檟는 苦茶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檟와 茶의 글자가 차에 대한 이칭임과 茶의 글자가 고대 차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다”

6) 付玲玲, 「陸遊茶詩研究」, 曲阜師範大學, 2006, 碩士論文 3쪽, 재인용.

7) 付玲玲, 위의 논문, 3쪽 요약.

陸游의 茶詩 내용 중에는 가족과의 단란한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것, 조정의 혼란함을 탄식하는 것, 첫 부인을 회상하는 것, 宋代 茶 시장의 형성, 茶館의 모습, 貢茶 제도에 관한 것, 그리고 선비들의 고아한 아취를 느낄 수 있는 鬪茶, 分茶⁸⁾ 등에 관련된 것 등 여러 방면의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宋代, 茶詩 研究에 훌륭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陸游의 茶詩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嚴英旭의 『宋代 茶文化 와 陸游의 茶詩 研究』⁹⁾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 논문으로는 付玲玲의 「陸遊茶詩研究」, 劉黎明의 「宋代茶俗과 陸游의 咏茶詩」, 劉煥群의 「陸游爲何茶詩多多」, 馬舒의 「陸游与建茶」, 顧云艷의 「陸游的《晨雨》与宋代的“斗茶”」 등의 연구가 있을 뿐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宋代, 飲茶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鬪茶, 分茶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付玲玲의 논문 「陸遊茶詩研究」⁹⁾와 揚之水의 논문 「兩宋茶詩與茶事」¹⁰⁾에서는 鬪茶와 分茶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王偉의 「斗茶與茶盞」¹¹⁾에서는 鬪茶를 논하고 있고 茶를 연구하는 다른 논문들에서도 鬪茶, 分茶에 대하여 자주 연구 되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陸游 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生活을 고찰하려고 한다. 陸游의 茶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부분에서 宋代의 茶 文化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陸游 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生活을 고찰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鬪茶, 分茶에 대해 우선 고찰하고 이런 鬪茶와 分茶 같은 고도의 技藝와 高雅한 茶 생활을 즐기기 위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茶 생활의 기초적인 일인 碾茶, 活水, 活火의 이용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논해 보고자 한다.

8) 논문 뒷부분 「陸游 茶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 生活」에서 자세히 설명함.

9) 付玲玲, 앞의 논문, 2006.

10) 揚之水, 「兩宋茶詩與茶事」, 『文學遺產』, 2003, 第2期.

11) 王偉, 「鬥茶與茶盞」, 上海商學院, 2009, 第20期.

2. 宋代 茶文化

中國은 최초로 茶를 발견하고 이용한 나라이며 5천년의 茶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황오제 시대에 이미 茶나무를 재배하고 이용하였으며 이 시기는 茶 마시는 풍습 또한 생겨난 시기이다. 唐代 陸羽의 『茶經』을 보면“차를 마실 거리로 삼은 것은 신농씨로부터 시작되고. (茶之爲飲 發乎神農氏)”¹²⁾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茶를 음료로 마신게 아니라 약으로 마셨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神農本草經』에 보면

“苦菜는 맛이 쓰고 차다. 오장의 좋지 않은 기운을 다스리며 위장과 비장을 돕는다. 오래 복용하면 마음이 편하고 기를 북돋는다. 눈과 귀가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노화를 방지한다. 일명 茶草라하고 일명 選이라고도 하며 냇가의 계곡에서 자란다”¹³⁾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茶文化은 兩漢에서 南北朝時期, 唐代를 거쳐 宋代에 이르게 된다.

宋代에는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 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했는데 이에 발 맞춰 茶의 수요 또한 증가하였고 茶의 유통도 체계화 되었다. 8세기부터 시행되었던 貢茶制度和 專賣制度는 宋代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 專賣制度로 국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宋代에는 또 茶馬貿易이 성행했는데, 中國의 西北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족들은 遊牧民族으로 牧畜業을 주로 하여 그들의 主食品은 동물성 고기와 우유였다. 신선한 야채를 구하기 힘든 그들은 비타민C의 섭취 위해 茶를 마셨으며 이것을 생존 음료로 삼았다. 이에 宋朝는 軍馬 얻기 위한 방법으로 茶와 그들의

12) 고세연, 『다경茶經·대관다론大觀茶論 고세연 고전 다서』, 미래문화사, 2002, 94쪽.

13) 염숙, 염영옥 공저, 앞의 책, 2009, 36쪽, 재인용.

말을 서로 바꾸는 茶馬貿易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대는 飲茶 생활의 보편화 등으로 茶館까지 성행하게 되는데 茶館의 분위기는 호화로웠으며 음악과 아름다운 茶具들과 다양한 茶들이 있는 공간이었다. 茶館에서는 문인들이 모여 詩를 짓기도 하고 벗들과 교류하는 문화의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는데, 남녀, 신분 등의 차이가 없이 드나들 수 있어서 양가집 규수들이 밤에 가서 茶를 마실 정도였다. 변화한 도시와 상업의 발달에 따라 宋人들의 생활도 다양하여 開封城에는 茶瓶을 들고 三更에 茶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로 봐서 도시의 일상생활과 상거래가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⁴⁾

宋代에는 유학이 발전 하였으며 또한 科擧制度를 실시하였는데 과거 응시자들에게는 茶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유학자들은 황실의 飲茶 풍습을 모방하였으며 손님 접대 시 술 대신 茶를 대접하였다. 이 시대는 茶文化의 흥성에 따라 茶學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집필되었는데 그중에 중요한 茶書들을 살펴보면 陶穀의 『荈茗錄』, 丁謂의 『北苑茶錄』, 周絳의 『補茶經』, 葉清臣의 『述煮茶小品』, 劉異의 『北苑拾遺』, 蔡襄의 『茶錄』, 沈立의 『茶法易覽』, 宋子安의 『東溪試茶錄』, 黃儒의 『品茶要錄』, 呂惠卿의 『建安茶記』, 沈括의 『本朝茶法』, 王端禮의 『茶譜』, 趙佶의 『大觀茶論』, 唐庚의 『鬪茶記』, 熊蕃의 『宣和北苑貢茶錄』, 趙汝礪의 『北苑別錄』, 審安老人의 『茶具圖贊』, 章炳文的 『壑源茶錄』 등 등이 있고 이외에도 몇몇 失名氏의 茶書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宋代의 徽宗皇帝 趙佶이 있고, 朝廷의 大臣과 文學家 丁謂, 蔡襄이 있었으며 그리고 著名한 科學家 沈括, 이름을 알지 못하는 隱士 審安老人 등이 있다. 이런 작자들의 신분으로 보면 宋代 茶學 研究의 계층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宋代에는 茶學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집필 된 것 외에도 뒷

14) 徐銀美, 「宋代의 飲茶生活과 茶 産業의 發展」, 慶星大 韓國學研究所, 2002, 16-17쪽 요약.

부분에서 자세히 고찰하고자하는 鬪茶, 分茶 풍습이 성행하였고, 도시 경제의 발전으로 茶館까지 등장하는 등, 飲茶文化가 보편화 되었다. 이런 사회의 환경은 茶를 제재로 하는 문학 창작에도 다량의 소재를 제공했다. 宋代의 茶詩는 唐代의 風貌를 계승했으며 詞로써 茶를 읊는 형식도 출현했다. 통계에 의하면 宋代의 茶詩, 茶詞는 모두 1000여 首에 달하며 많은 著名 詩人, 詞人들은 인구에 회자되는 茶詩, 茶詞를 남겼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北宋 초기의 王禹, 林逋, 中期의 梅堯臣, 歐陽修, 王安石, 蘇東坡등이 있고 後期에는 陸游, 黃庭堅, 范成大, 楊萬里 등이 있다.¹⁵⁾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宋代에는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 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茶의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茶의 유통도 체계화되었고 茶馬貿易과 茶館의 성행, 鬪茶, 分茶등의 茶技藝 등을 즐기는 등, 공전의 茶文化의 번영기를 누렸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로 茶와 관련된 많은 書籍이 등장하였고, 많은 문인들이 茶詩를 창작해 宋代 茶文化를 찬란하게 꽃피웠다.

3. 陸游 茶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 生活

唐代와 北宋까지 유행했던 煎茶방식은 南宋에 이르러 쇠퇴하고 點茶방식이 유행 되었다. 點茶는 固形인 茶를 가루 낸 후에 茶碗에 茶가루를 넣고 소량의 끓는 물을 넣어 茶筴으로 휘저으며 茶가루와 물이 섞여 거품이 피어오르면 마시는 방식이다. 點茶 할 때는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물이 미지근하면 큰 거품이 생겨서 좋지 않고 물이 너무 뜨거우면 거품이 나

15) 余悅, 周春蘭, 「中國宋代茶文化的繁榮與特色(續)」, 江西城中國茶文化研究中心, 南昌大學, 26쪽 요약.

지 않기 때문이다. 點茶 할 때는 표면 색깔은 선명한 흰색이 돌아야 한다. 또 찻잔에 몽친 물방울의 흔적이 주변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좋다.¹⁶⁾ 宋 徽宗의 『大觀茶論』에는 일반인들이 點茶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휘종이 창안한 妙方으로 一湯에서 七湯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陸游의 詩를 살펴보면 宋代의 飲茶 생활을 엿볼 수 있다. 陸游의 茶詩 내용 중에는 가족과의 단란한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것, 朝廷의 혼란함을 탄식하는 것, 첫 부인을 회상하며 쓴 것, 貢茶제도에 관한 것, 그리고 선비들의 古雅한 雅趣를 느낄 수 있는 鬪茶, 分茶에 관한 것 등 여러 방면의 詩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鬪茶, 分茶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茶技藝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高雅한 雅趣를 즐기기 위해서는 茶를 미세하게 가는 맷돌이 필요하고,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茶를 다릴 때 불의 선택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陸游詩 중에 나타난 鬪茶, 分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詩를 우선 考察하고 이어서 碾茶, 活水, 活火의 이용 등의 차례로 陸游의 茶詩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鬪茶

宋代에는 茶를 마시고 그 맛을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茶를 비교하고 겨루기도 하였는데 이를 鬪茶, 鬪試, 茗戰등으로 불리었다. 鬪茶는 唐代 白居易의 詩「夜聞賈常州崔湖州茶山境會想羨歡宴因寄此詩」¹⁷⁾를 보면“미녀들 번갈아 춤추며 예쁨을 자랑하고 자순차 조심스레 맛보며 우열을 견주어 보네 靑娥遞舞應爭妙, 紫筍齊嘗各鬪新”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詩를 보면 鬪茶가 당대

16) 누노메 초우 지음 정순일 옮김, 『중국 킷다 문화사』,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2, 262-263쪽 요약.

17) 김길자 역주, 『中國茶詩』, 현암사, 1999, 27쪽.

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鬪茶는 차잎의 품질과 茶를 끓이는 기술로 승부를 겨루었는데 점차 茶의 技藝로 發展하여 茶의 色, 香, 味를 중시 여겼다. 鬪茶는 貢茶 제조인들의 茶의 품질을 겨루는 試茶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런 鬪茶 풍습은 北宋 말기에 귀족들 사이에서 일반화 되었고 南宋 때에도 성행하였다. 范仲淹의 「鬪茶歌」에는 “북원의 茶 천자에게 기함에 올려야 하느니 먼저 숲에서 나리들이 茶의 우열을 가린다네. (北苑將期獻天子, 林下雄豪先鬪美)”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천자에게 茶를 바치기 전에 먼저 茶의 품질을 겨루어 보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鬪茶의 판정은 차물 표면의 색과 거품의 균형상태를 가지고 한다. 잔의 안쪽에 차물이 닿는 곳의 물 흔적이 有無를 확인하고 거품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잔의 내측에 닿는 것과 거품이 색이 白色인가를 판정 기준으로 삼으며 차물이 닿는 곳에 물의 흔적이 있는 쪽이 지고 물이 흔적이 없이 말끔한 쪽이 이기게 된다. 鬪茶는 文人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하였으며 陸游의 詩 중에도 이런 鬪茶 技藝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의 詩 「晨雨」을 보면

揮汗驅蚊廢夜眠	땀을 흘치고 모기를 쫓으며 밤잠에서 깨어나니,
清晨一雨便儵然	이른 아침 한차례 비에 소연하네.
涼生池閣衣巾爽	서늘함이 지각에 생기니 의건이 상쾌하고,
潤入園林草木鮮	물에 젖은 원림은 초목이 곱네.
青蕩雲腴開鬪茗	푸른 조리대 차로 투차 하려고,
翠鬢玉液取寒泉	비취 향아리에 옥같이 맑은 한천을 길어 오네.
飯餘一枕華胥夢	밥을 먹은 후 베개를 베고 꿈을 꾸는데,
不怪門生笑腹便	문객이 살찐 배를 비웃어도 책망하지 않는다.

라고 읊고 있는데 이 詩는 육유의 편안한 생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詩의 전반부는 여름날 비 그친 뒤, 맑은 새벽 기운과 촉촉이 젖은 園林의 草木을 바라보면서 여름밤의 열기로 잠을 설친 심신의 피로를 날려 버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리고 후반부에서는 宋代의 화려했던 鬪茶 문화를 엿 볼 수 있다. 頸聯에 보면 “푸른 조리대 차로 鬪茶 하려고, 비취 항아리에 옥같이 맑은 한천을 길어 오네(靑蕪雲映開鬪茗, 翠甕玉液取寒泉)”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鬪茗”은 ‘鬪茶’를 나타내는 것으로 宋代에 성행했던 鬪茶를 陸游 역시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비취 항아리에 옥같이 맑은 한천을 길어 오네.(翠甕玉液取寒泉)’라는 것으로 봐서 鬪茶 하는데 있어서 물이 중요함까지 더불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宋代에 鬪茶는 매우 보편적인 茶俗 활동이고 당시 많은 지방, 특히 차 산지에서는 鬪茶 활동이 성행하여 많은 문인들의 鬪茶를 애호 했다. 鬪茶가 일반화 되면서 茶道를 추구하는 우아한 취미로 여겨졌으며 교양의 필수 조건¹⁸⁾으로 鬪茶의 기술이 자리 잡았다. 鬪茶 풍습은 茶의 품질의 향상, 茶具의 발전을 가져 왔으며 茶文化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2) 分茶

宋代는 制茶工藝와 品飲技藝의 향상으로 茶로써 흥취를 돋우는 茶藝 활동이 생겨난다. 分茶는 바로 당시 매우 성행했던 하나의 茶藝 활동이다.¹⁹⁾ 分茶는 鬪茶와는 달리 혼자서도 茶를 즐길 수 있는 놀이이다. 分茶는 茶를 다루는데 능한 사람이 茶湯 위에 그림, 文字, 禽獸, 꽃등의 다양한 物像을 그려내는 문인 취향의 놀이로 宋初에 시작하여 宋, 元代에 성행한 일종의 茶藝로 湯戲, 茶戲, 茶百戲라고도 불려졌다.

『清異錄』卷四 茗菴門²⁰⁾에는 生成盞, 茶百戲, 漏影春을 통해 分

18) 徐銀美, 「茶書와 宋代 茶文化」, 경성대, 2002, 149쪽.

19) 付玲玲, 「陸游茶詩研究」, 曲阜師範大學, 2006, 6쪽.

20) 고연미, 「宋代 分茶와 吉州窯 茶盞의 문양장식에 관한 一考」,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문화학과, 2010, 46쪽 재인용.

茶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첫째, 生成盞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饌茶而幻出物像于湯面者 茶匠通神之藝也 沙門福全 生於金鄉 長於茶海 能注湯幻茶 成一句詩 竝点四 共一絕句 泛乎湯表

다탕 표면에 물품의 형상을 환상과 그림자처럼 몽롱하게 나타낸 것은 茶匠이 神에 통하는 技藝이다. 福田스님은 金鄉에서 태어나 茶海에서 자라 끈질 끓인 물을 따라서 茶를 변하게 하여 한 句의 詩를 이루고, 나란히 네 사발을 달여서 더불어 한 絕句가 끓인 물의 표면에 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탕 표면에 물품의 형상을 환상과 그림자처럼 몽롱하게 나타낸 것은 茶匠이 神에 통하는 기예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福田스님은 다탕 위에 한 首의 詩를 이루는 정도의 최고의 分茶 技藝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둘째로, 茶百戲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茶至唐始盛 近世有下湯運匕(允) 別施妙訣 使湯紋水脈成物象者 禽獸魚花草之屬 巧如畫 但須臾就散滅 此茶之變也 時人謂之茶百戲

茶는 당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繁盛하였다. 근래에 끓인 물을 내리고 숟가락을 돌려 따로 묘한 비결을 베풀어 끓인 물의 무늬와 물줄기로 하여금 물건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있다. 금수, 곤충, 물고기, 꽃, 풀 등의 무리는 그림처럼 섬세하고 정교하였다. 다만 순식간에 곧 흩어져 사라진다. 이것이 茶의 변화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茶百戲라고 부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分茶 時에 '匕'의 사용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양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당시 사람들은 이를 茶百戲 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셋째, 漏影春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보면

用鑲紙貼盞 茶而去紙 僞爲花身 別以肉爲葉 松實鴨脚之 類珍物爲

沸湯點攪

새겨 넣은 종이를 잔에 붙이고 차를 뿌리고 나서 종이를 거두면
가짜 꽃모양이 나타난다. 따로 여지(荔枝) 과육으로 잎을 만들고,
잣, 은행류의 진귀한 것으로 꽃술을 만들어 꿀은 물로 휘저어 접다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기예가 없어도 가능한 分茶
방법을 얘기 하고 있다. 꽃 모양을 새긴 종이를 찻잔에 붙이고
그 위에 茶가루를 뿌리고 나서 종이를 거두어 꽃모양을 남게 하
는 방법으로 여지과육, 잣, 은행 등으로 진귀한 꽃술을 만들며
分茶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陸游의 詩²¹⁾에도 分茶를 즐겼던 내용들이 보이는데 「臨安春雨
草書」를 보면

世味年來薄似紗	몇 년 동안 세상 재미 실처럼 얇어져
誰令騎馬客京華	그 누가 한양에 나그네 되게 했는가
小樓一夜聽春雨	꼭 작은 누각에서 밤새 봄비소리 들리니
深巷明朝賣杏花	깊은 골목길에서는 내일 아침 살구꽃을 팔겠구나
矮紙斜行閒作草	좁은 종이 비스듬한 행간에 한가히 초서 써보고
晴窗細乳戲分茶	비건 창가에서 작은 포말을 보며 分茶를 즐기네
素衣莫起風塵嘆	흰 옷에 흙먼지 일어남을 탄식하지 말아라
猶及清明可到家	그래도 청명절에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

라고 읊고 있다. 이 詩는 陸游가 南宋의 서울인 항주에서 나그
네의 몸이 되었을 때 쓴 詩이다. 밤새도록 봄비 내리는데 수심
에 찬 시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草書를 쓰며 비건 창가에서
分茶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草書를 쓰고 분차를
즐기는 것으로만 보면 한적함을 노래한 詩로 보일 수 있으나
“몇 년 동안 세상 재미 실처럼 얇어져, 그 누가 한양에서 나그

21) 付玲玲, 앞의 논문, 2006, 6쪽 재인용.

네 되게 했는가? (世味年來薄似紗, 誰令騎馬客京華)"를 보면 이 詩는 나그네 신세에 대한 한탄과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草書를 쓰고 分茶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의 詩 「湖上僧庵」에는 “그윽한 향기의 향을 끄니 산골에서 구름이 생기는 듯하고 瑞龍茶를 分茶하니 유화가 잔에 뜨네. (奇香柱罷云生岫, 瑞茗分成乳泛杯)”라고 읊고 있다. 이 詩들을 보면 육유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分茶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자세한 分茶의 文樣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分茶는 茶品과 湯水의 요구가 매우 높고 茶人이 茶를 끓이는 技藝도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分茶가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視覺을 享受하는 것과 古雅한 藝術이 情趣이다.²²⁾ 이런 高雅한 雅趣를 추구했던 陸游의 위의 詩들은 宋代 飲茶 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3) 碾茶

宋代는 研膏茶가 성행하였다. 團茶인 研膏茶²³⁾를 마시려면 우선 甌에 가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茶를 甌에 곱게 갈아 좋은 茶를 얻어야만 茶의 진미를 맛 볼 수 있기 때문에 茶를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宋代에는 點茶法이 유행하였다. 點茶란 고풍인 茶를 甌에 갈아서 체에 곱게 거른 후 그 가루를 茶杯나 茶碗에 넣고 끓인 물을 부어 茶筴으로 젓고 거품을 내어 마시는 방법이다.宋代에는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鬪茶, 分茶가 유행하였기 때문에 甌에 곱게 간 좋은 茶를 얻는 것 또한 중시했다. 陸游의 詩뿐만 아니라 다른 宋代 시인의 詩에도 甌에 관한 내용들이 자

22) 付玲玲, 앞의 논문, 2006, 6쪽 요약.

23) 찻잎을 찌고 압착기에 넣어 膏를 짜내고, 研에 곱게 간 후 틀에 넣어 단단하게 둥근 형태로 만든 차를 말함.

주 등장하고 있으며, 여러 茶書들에도 맷돌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宋代 蔡襄(1012~1067)의 茶錄을 보면 “茶를 맷돌에 갈 때는 먼저 깨끗한 종이에 잘 싸서 망치로 부순 다음에 연에 넣고 충분히 간다.(碾茶先以淨紙密裹捶碎, 然後熟碾)”²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맷돌에 茶를 갈기 전에 두드려 부순 뒤 맷돌에 茶를 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茶를 가는 작업은 마실 때 마다 하는데 茶를 간 직후에는 茶의 색깔이 흰색이지만 갈아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다.

陸游의 詩中에도 맷돌로 茶를 가는 모습과 섬세하게 갈아서 내려오는 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표현해 내고 있다. 그의 詩 「池亭夏晝」에 보면 “작은 맷돌에서 떨어지는 차는 눈송이처럼 분분하고 (小磑落茶紛雪片)”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곱게 갈아진 하얀 茶가 맷돌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하얀 눈송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幽居卽事」詩에는 “작은 맷돌에서 설화가 떨어지고 두레박을 닦아 우유 같은 물을 길네. (小磑落雪花, 修綆汲牛乳)”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모두 맷돌에 茶를 가는 모습과 곱게 갈아진 茶가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묘사한 詩句들이다. 그렇다면 宋代에는 어떤 맷돌을 사용했는지, 茶를 갈 때는 어떤 종류의 맷돌이 최고로 좋은 맷돌로 여겼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陸游의 詩를 고찰하기 전에 宋代의 여러 서적들에 나타난 자료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北宋의 徽宗 皇帝가 저술한 『大觀茶論』을 보면 “연은 은으로 만든 것이 좋고, 숙철로 만든 것이 그 다음이다.(碾以銀爲上, 熟鐵次之)”²⁵⁾라고 말하고 있고 蔡襄의 『茶錄』에도 “맷돌은 은이나 쇠로 만든다.(茶碾以銀或鐵爲之茶)”²⁶⁾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 내용을 보면 이 시대에는 은으로 만든 맷돌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陸游의

24) 류건집 주해, 『宋代茶書의 註解』上, 도서출판 이른아침, 2010, 39쪽.

25) 류건집, 위의 책 上, 120쪽.

26) 류건집, 위의 책 上, 52쪽.

詩에도 맷돌이 자주 등장하는데 陸游의 「試茶」詩를 살펴보면

蒼爪初驚鷹脫講	매발톱 같은 푸른 찻잎이 놀란 듯 싹터 나와
得湯已見玉花浮	눈 같은 차탕이 떠오르는 것 보이네.
睡魔何止避三舍	졸음을 백리 밖까지 쫓아내고
歡伯直知輸一籌	술은 이름조차 겨낼 수 없다네.
日鑪焙香懷舊隱	일주차 불에 쪄이는 향기 옛 추억 떠올라
谷簾試水憶西遊	여산에 가 곡렴수로 차 맛보던 일 생각나네.
銀餅銅碾俱官樣	은병과 동맷돌 제대로 갖춰 놓고,
恨欠纖纖爲捧甌	가녀린 손으로 차 권했던 일 한스럽기만 하구나.

라고 읊고 있다. 위의 詩는 陸游의 茶詩를 대표 할 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詩 한편에 속에서 宋代의 飲茶生活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詩의 1句에서는 찻잎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2句에서는 茶를 다릴 때 茶湯이 떠오르는 모습, 3句에서는 졸음을 쫓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5句에서는 日鑪라는 茶를 불에 쪄여 말리는 과정, 6句에서는 茶 맛을 최상으로 우려 낼 때 사용한다는 최상급의 물을 나타내는 谷簾水, 그리고 7句에서는 은병과 동 맷돌 등 茶具에 대하여 읊고 있다. 이 처럼 宋代의 飲茶生活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詩에서는 銅으로 된 맷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詩 「史院書懷」를 보면 “돌 맷돌에는 눈이 흩날리고 동화로에는 구름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네.(石磑霏霏雪, 銅爐嫋嫋雲)”라고 하여 돌 맷돌을 사용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晝臥聞碾茶」에서는 “동 맷돌 소리 속에 잠은 사라져 버렸네(銅碾聲中睡已無)”라고 읊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동 맷돌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陸游詩 외에 蘇軾 「詠茶詩」를 살펴보면 “황금 맷돌을 가볍게 돌리니 푸른 가루가 피어나네.(輕動黃金碾 飛起綠塵埃)”²⁷⁾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는 황금 맷

27) 김길자, 앞의 책, 1999, 258쪽.

돌을 사용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徽宗 황제의 『大觀茶論』에서 “바퀴 맷들은 은으로 만든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碾以銀爲上, 熟鐵次之)”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맷돌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宋代에는 茶 마시는 일에 있어서 “군자나 소인 모두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부귀한 자나 가난하고 천한 자나 茶를 마시지 않은 자가 없었다”²⁸⁾ 라고 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었고 또한 鬪茶, 分茶생활의 성행으로 宋代에는 다양한 종류의 金, 銀, 銅, 石등의 맷돌을 이용하여 茶를 갈아 마셨음을 알 수 있다.

5) 活水의 利用

宋代 문사들은 茶를 맛볼 때 淸, 輕, 潔한 물을 취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맑고 투명하고 청결하며 흐리지 않는 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살아 있는 물을 취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 “活水”의 개념을 제기 했는데 이는 곧 흐르는 근원이 있는 물을 말한다.²⁹⁾ 이처럼 茶를 다릴 때는 우선 물이 좋아야 茶의 기이한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물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茶라도 하급의 물로 우려내면 우수한 茶 맛이 제대로 우려나지 않아 상급 茶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당대부터 중국의 여러 茶書에서는 물의 선택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唐代 陸羽가 쓴 『茶經』을 살펴보면 “茶 달일 때 쓰는 물은 산에서 나는 것이 상품이고 강물이 다음이고 우물물은 그 아래다(其水 用山水上江水中井水下)”³⁰⁾

28) 임진호, 김미량, 『宋代 茶文化 양상과 蘇軾의 內儒外道』, 중국문화연구 제19집, 2011, 290쪽 재인용.

29) 余悅, 馮文開, 王立霞, 『北宋茶詩与文士雅趣簡論』, 2007, 요약.

30) 육우지음 류건집 주해, 『茶經註解』, 도서출판 이른아침, 2010, 241쪽.

라는 구절이 전해지는데 이후로 茶 애호가들도 茶를 마실 때는 좋은 물을 이용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唐代 張又新의 『煎茶水記』에서는 물이 茶와 맞는 것을 비교하여 모두 7등급으로 나뉘어 놓고 있는데

揚子江南零水 第一	양자강 남령의 물이 첫째요
無錫惠山泉水 第二	무석 혜산의 샘물이 둘째요
蘇州虎丘寺泉水 第三	소주 호구사의 샘물이 셋째요
丹陽縣觀音寺水 第四	단양현 관음사의 물의 넷째요
揚州大明寺水 第五	양주 대명사의 물이 다섯째요
吳松江水 第六	오송강의 물이 여섯째요
淮水最下 第七	회수는 최하로 일곱째이다. ³¹⁾

라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宋代 蘇軾의 「試院煎茶」라는 詩에도 “그대는 옛날 이생이 객을 좋아해 손수 다려 불을 피워 갖 길어온 샘물을 귀히 여김을 보지 못했는가(君不見昔時李公好客手自煎貴從活火發新泉)³²⁾”라는 구절이 있는데 소식도 茶를 다릴 때 물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해 갖 길어온 샘물을 귀히 여김을 이 詩에서 말하고 있으며 그의 詩 「元翰少卿龍惠谷簾水一器，龍團二枚 仍以新詩爲贈，歎味不已」에서는 “명주 폭 바위에 드리우며 천 갈래로 떨어지니 우레 소리가 쌍룡을 일으키며 만물을 생동케 하는 구나. 廬山과 谷簾水 모두가 으뜸이라, 이 산과 이 샘물 그리고 내가 못 속에서 노니네(岩垂匹練千絲落 雷起雙龍萬物春 此山此水俱第一 共成三人鑿中人)³³⁾”라고 읊고 있는데 여기서는 廬山과 谷簾水가 으뜸임을 말하고 있다. 소식의 詩와 마찬가지로 陸游의 詩에서도 廬山과 谷簾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의 詩 「試茶」를 살펴보면 “일주차 불에 쪄이는 향기 옛 추억 떠올

31) 바이두 백과, <http://baike.baidu.com/view/566710.htm> 張又新, 『煎茶水記』 원문.

32) 임진호·김미랑, 앞의 논문, 2011, 297쪽.

33) 김길자, 앞의 책, 1999, 130쪽.

라, 여산에 가 곡림수로 茶 맛보던 일 생각나네. 은병과 동 맷돌 제대로 갖춰 놓고 가너린 손으로 茶 권했던 일 한스럽기만 하구나.(日鑄焙香懷舊隱, 谷簾試水憶西遊. 銀餅銅碾俱官樣, 恨欠纖纖爲捧甌)³⁴)라고 되어있다. 陸游는 20세 때 사촌여동생 唐婉과 결혼했다. 죽마고우로 자란 그들의 금슬은 좋았다. 하지만 陸游의 어머니는 唐婉이 남자들과 학문을 토론하는 것을 트집 잡았고 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이혼을 강요해 그들은 헤어지게 된다. 위의 詩는 타향 성도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옛 부인과 함께 廬山에서 谷簾수로 茶를 마시던 일을 추억하며 지은 詩이다. 이 詩에도 상급의 물인 谷簾水を 얘기 하고 있다. 陸游는 위의 詩 외에도 물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詩들을 여러 편 썼는데 그의 詩 「幽居卽事」에는 “작은 맷돌에서 설화가 떨어지고 두레박을 닦아 우유 같은 물을 길네.(小磑落雪花, 修綆汲牛乳)”라는 詩句가 있으며, 「雪後煎茶」에는 “눈 녹아 정천에 맑고 단 물이 부니 스스로 차 화로를 들고 차 달이러 가네(雪液清甘漲井泉 自攜茶灶就烹煎)”라는 구절이 있다. 이 처럼 宋代 문인들은 상급의 물을 찾아, 勝景을 찾아 茶를 음미 하며 詩도 읊고 삶의 雅趣을 즐겼다. 陸游는 때로는 명천은 아니지만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승경에서 茶를 마시는 즐거움을 찾기도 했는데 아래의 「三游洞前岩下小潭水甚奇取以煎茶」詩는 陸游 자신이 경험한 일을 詩로 적은 것이다.

苔徑芒鞋滑不妨	이끼 낀 길이지만 짚신이라 미끄럽지 않고
潭邊聊得據胡床	담수 변에 의자 펴고 앉았네
岩空例看峰巒影	바위에서 즐비하게 늘어선 산 그림자를 보고
澗遠中含藥草香	골짜기에서 오랫동안 약초 향을 머금은
汲取半瓶牛乳白	반병의 맑은 우유 같은 물을 기는데
分流觸石珮聲長	갈라져 흐르며 돌에 부딪히는 패옥소리 뛰어나네
囊中日鑄傳天下	주머니 속에 일주차 천하에 전하여지니

34) 김길자, 앞의 책, 1999, 137쪽.

不是名泉不合嘗 명천이 아니면 맛보기에 맞지 않네

이 詩에서 말하고 있는 물은 유명하지 않은 산간의 담수이다. 1169년 陸游가 四川省奉節縣에 通判으로 부임하여 湖北宜昌을 지날 때 西陵山에 이르렀다. 그가 三游洞에서 노니는데 산허리에 있는 詩속의 담수를 발견하게 된다. 물은 옥같이 맑았다. 맛보니 달고 순하여 좋은 술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陸游는 바로 이 물을 떠다 몸에 지니고 다니던 일주차를 맛보니 맛이 일품이었다. 그래서 그는 “명천이 아니면 맛보기에 맞지 않네. (不是名泉不合嘗)”라고 읊어 전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陸游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의 담수를 陸游潭, 陸游井, 陸游泉이라고 하였다. 그의 차물에 대한 깊은 造詣는 宋代 문인의 飲茶 예술로 하여금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³⁵⁾

위의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宋代 사람들은 茶를 마실 때 茶의 色, 香, 味을 좌우할 수 있는 물을 중요시하는 욕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고, 陸游도 상급의 물이 있는 勝景을 찾아 茶를 마시며 詩도 읊는 삶의 雅趣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6) 活火의 利用

茶를 다릴 때는 불의 선택과 불의 조절 또한 중요하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活火의 사용을 중시했다. 活火는 숯불을 말하며 사람들이 많이 애용했는데, 明나라의 屠隆이 지은 考槃餘事에 보면 “무릇 차는 약한 불로 굽고 활화로 달인다. 활화란 숯불에 불꽃이 있는 것을 말한다.(凡茶須緩火炙 活火煎 活火謂炭火之有焰者)”³⁶⁾라고 하고 있다. 숯은 잘 태워진 숯이라야 냄새가 나지 않고

35) 余悅 周春蘭, 「中國宋代茶文化的繁榮與特色(續)」, 江西省中國茶文化研究中心, 南昌大學, 25쪽 요약.

36) 차학연구원, http://cafe.daum.net/teakorea?t__nil_cafemy=item 재인용.

火力도 좋아 물을 끓이는데 편리하다. 나무의 성질이 모두 사라지 않은 숲을 사용하여 만약 연기가 湯에 들어가면 湯은 쓸모가 없게 된다. 적절한 불을 얻어야만 眞水를 얻을 수 있다. 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물고기의 눈 같은 포말이 생기고 미미한 소리가 나는 것을 一沸이라 하고 구슬같이 방울이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을 二沸라 하며 거친 파도소리가 일고 물방울이 튀기게 되면 三沸라 한다. 이처럼 活火로 活水를 적정하게 끓이면 水性을 불러일으키고 水氣가 사방에 자욱하게 퍼져 飲茶 하는데 그윽한 아취가 저절로 더해지기도 한다. 古書籍들에도 보면 불의 사용에 대하여 언급함이 있는데 陸羽의 『茶經』五之煮에 보면

其火用炭，次用勁薪(謂桑 槐 桐 櫟之類也) 其炭 曾經燻灸，爲腫膩所及，及膏木 敗器不用之(膏木爲栢 桂 檜也 敗器 謂朽廢器也) 古人有勞薪之味，信哉.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숲을 쓰고 (그렇지 못하면) 다음은 단단한 나무를 쓴다(단단한 나무는 뽕나무, 괴목, 오동나무, 참나무 같은 종류를 이른다). 이미 고기를 구워서 누린내가 나게 된 숲이나 진이 많은 나무며 썩어서 버린 기물의 나무는 쓰지 않는다(진이 많은 나무에는 잣나무, 계수나무, 전나무가 있고, 패기는 썩어서 버린 기물을 말한다). 옛사람들이(음식에) 썩은 딸감을 구분한다고 했으니 믿을 만한 일이다.³⁷⁾

라고 하여 불의 선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蘇軾의 詩 「汲江煎茶」에서는 “살아 있는 물은 살아 있는 불에서 달여 한다(活水還須活火烹)”라고 말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서적들에서도 불의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明代 田藝蘅의 『煮泉小品』을 보면

有水有茶，不可无火。非无火也，有所宜也。 李約云：“茶須緩火

37) 육우 지음, 류건집 주해, 앞의 책, 2010, 237-238쪽.

炙, 活火煎.”活火, 謂炭火之有焰者, 蘇軾詩 “活火仍須活水烹”是也. 余則以爲山中不常得炭, 且死火耳, 不若枯松枝爲妙. 若寒月多拾松實, 畜爲煮茶之具更雅. 人但知湯候, 而不知火候, 火然則水干, 是試火先于試水也. 《呂氏春秋》: 伊說湯五味, 九沸九變, 火爲之紀.³⁸⁾

물이 있고 茶가 있어도 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불 다루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악이 이르기를 “茶는 모름지기 느린 불로 굽고 살아있는 불로 달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소식의 시에는 “살아있는 불은 역시 살아있는 물을 달여야 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산속에서 숯을 얻을 수가 없고 죽은 불이기도 하므로 그렇지 않으면 마른 솔가지를 쓰는 것은 묘책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추운 겨울철에 솔방울을 많이 쌓아 두고 茶를 달이면 더욱 고상함을 갖추어 준다. 사람들은 다만 끓는 물 살피기만 알고 불 살피기를 잘 모른다. 불이 타야만 물이 마르게 된다. 이에 불보기가 물 보기보다 앞서는 것이다. <여씨 춘추>에는 “이윤이 탕왕에게 다섯 가지의 맛을 아뢰어 아홉 번 끓여서 아홉 번 변하는 것이 불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다.³⁹⁾

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茶를 맛보려면 불이 선택 또한 귀히 여김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육유의 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詩 「初春感事」에 보면 “활화를 피워 차 술이 익어 감을 조용히 보며, 맑은 샘물을 버루에 넉넉히 붓네(活火靜看茶鼎熟, 清泉自注研池寬)”라는 詩句가 있는데, 이 詩를 보면 육유 또한 活火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위의 詩 외에 그의 「北岩采新茶」詩를 보면

槐火初鑪燧	부싷돌로 뚫어 회나무 불 방금 피우고
松風自候湯	송풍 소리에 물이 끓는지 살펴보네.
攜籃苔徑遠	바구니 들고 가는 이끼 낀 길은 멀고
落爪雪芽長	손톱으로 떨어지는 설아는 아름답네.
細啜襟靈爽	찬찬히 마시니 마음이 상쾌하고

38) 바이두 백과, <http://baike.baidu.com/view/1001018.htm>, 「田藝衡의 煮泉小品」 원문.

39) 차학연구원, http://cafe.daum.net/teakorea?t__nil_cafemy=item.

微吟齒頰香 나직이 읊노라니 이와 뺨이 향기롭네.
 歸時更清絕 돌아 올 때에는 더욱 맑아지고
 竹影踏斜陽 저녁노을에 대나무 그림자 밟는다.

라고 읊고 있는데 이 詩는 불을 피우고 물을 끓여 茶를 마시고 돌아오는 전 과정을 읊고 있는 詩로 부싷돌로 화나무를 이용해 불을 취하고 물을 끓이는 모습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陸羽의 茶經에서 말했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숯을 쓰고(그렇지 못하면) 다음은 단단한 나무를 쓴다(단단한 나무는 뽕나무, 괴목, 오동나무, 참나무 같은 종류를 이른다 ; 其火用炭, 次用勁薪(謂桑 槐 桐 櫪之類也))”⁴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陸游도 숯 대신 槐樹를 이용하여 불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위의 자료들로 보면 육유 역시 茶를 마실 때 불의 선택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으며 宋代의 飲茶 生活 中에 불의 선택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北宋과 南宋이 교차하는 격변의 시기에 태어난 陸游(1125~1209)는 어려서부터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보고 자랐다. 그래서 그는 愛國詩를 많이 써서 愛國詩人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역대 중국 詩人들 중에서 가장 많은 詩를 써서 무려 9,200여 首나 되는 詩를 전하고 있다. 晩年은 고향에 한거하며 주로 평이하고 질박한 필치로 농촌의 일상적인 생활을 題材로 하는 詩를 썼다. 그의 茶詩도 대부분 晩年에 山陰縣 고향에 거주할 때 창작한 했는데 그 작품 수는 320여 首⁴¹⁾나 된다.

40) 육유 지음, 류건집 주해, 앞의 책, 2010, 237쪽.

41) 劉黎明, 앞의 논문, 1998.

宋代에는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 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했는데 이에 발 맞춰 茶의 수요 또한 증가하였고 茶의 유통도 체계화 되었다. 宋代에는 茶 마시는 일에 있어서 “군자나 소인 모두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부귀한 자나 가난하고 천한 자나 茶를 마시지 않은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茶 문화의 흥성에 따라 茶學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집필되었고, 詩 분야에서도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 宋代의 茶詩, 茶詞는 모두 1000여首에 달하며 많은 著名 詩人, 詞人들은 인구에 회자되는 茶詩, 茶詞를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陸游 茶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生活을 考察해 보았다.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宋代 飲茶生活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宋代 茶文化를 간략하게 살펴봤고, ‘陸游 茶詩에 나타난 宋代 飲茶生活’ 부분에서는 茶를 마시고 그 맛을 즐기며 茶를 겨루기도 했던 鬪茶와 茶湯 위에 그림, 文字, 禽獸, 꽃 등의 다양한 物像을 그려내는 놀이였던 分茶 등을 우선 고찰했으며, 이어서 이런 高雅한 雅趣를 즐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했던 碾茶, 活水, 活火의 이용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고찰하여 宋代 飲茶生活을 들여다보았다.

陸游의 茶詩 中에는 본 논문에서 고찰한 내용 외에도 가족과의 단란한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것, 朝廷의 혼란함을 탄식하는 것, 첫 부인을 회상하며 쓴 것, 貢茶제도에 관한 것 등, 다양한 내용의 詩들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여러 방면의 내용들을 추가 고찰하여 육유 茶詩 연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주제어 : 陸游 茶詩, 宋代 茶文化, 鬪茶, 分茶

■ 참고문헌

- 許瑞琪 注評, 『陸游詩注評』, 齊魯書社, 2009.
- 劉黎明, 「宋代茶俗과 陸游의 咏茶詩」, 文史雜誌, 1998, 第05期.
- 付玲玲, 「陸遊茶詩研究」, 曲阜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
- 揚之水, 「兩宋茶詩與茶事」, 『文學遺產』 2003, 第2期, 2008.
- 王 偉, 「鬥茶與茶盞」, 上海商學院, 第20期, 2009.
- 염숙·엄영옥 공저,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茶 문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 徐銀美, 「宋代的 飲茶生活과 茶 産業의 發展」, 慶星大 韓國學研究所, 2002.
- 余悅·周春蘭, 「中國宋代茶文化的繁榮與特色(續)」, 江西城中國茶文化研究中心, 南昌大學.
- 누노매 초우 지음·정순일 옮김, 『중국 깍다 문화사』,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2.
- 류건집 주해, 『宋代茶書의 註解』, 도서출판 이른아침, 2012.
- 김길자 역주, 『中國茶詩』, 현암사, 1999.
- 顧云艷, 「陸游의 『晨雨』 与宋代的“斗茶”」, 鎮江高專學報, 第21卷 第2期, 2008.
- 徐銀美, 「茶書와 宋代 茶文化」, 경성대, 2002.
- 고연미, 「宋代 分茶와 吉州窯 茶盞의 문양장식에 관한 一考」,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문화학과, 2010.
- 余悅, 馮文開, 王立霞, 「北宋茶詩与文士雅趣簡論」, 江西省社會科學院,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河北學刊, 第27卷, 第6期, 2007.
- 육우지음·류건집 주해, 『茶經註解』, 도서출판 이른아침, 2010.
- 임진호·김미랑, 「宋代 茶文化 양상과 蘇軾의 內儒外道」, 중국 문화연구 제19집, 2011.
- 劉玉紅, 「蘇軾咏茶與宋代茶俗」, 華夏文化, 1999, 第04期.

주기평, 『육유시가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0.

고세연, 『다경茶經·대관다론大觀茶論 고세연 고전 다서』, 미
래문화사,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tea drinking life of the Song era
shown in Luyou's tea poems

Song, In-Ju

Luyou was a poet of the Song Dynasty in China, who wrote the highest number of poems ever recorded in China, 9,200. He is considered a patriotic poet as he wrote a lot of poems praising his country. Poets of the Song Dynasty were given a lot of themes needed to create tea poems thanks to the prosperous tea culture during the era, this encouraged him to write prolifically and 320 of his tea poems still exist today. I am studying the tea drinking life of the Song era shown in Luyou's tea poems because, although many tea poems remain, so fa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in Korea.

Key words : Luyou's tea poems, the tea culture of the Song Era, doucha, fenchā

논문투고일 : 2012년 11월 15일 / 논문수정일 : 2012년 12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1월 20일